

# “예산없이 지역경제 살릴 수 없나”

## 전북도 맞춤형 지방규제개혁 과정 교육 실시 도민·기업 중심 규제혁신 기반 조성 박차

전북도는 12일,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중강당에서 도,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2기 맞춤형 지방규제개혁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개혁에 대한 주요 성과와 다양한 규제개혁 현장사례를 통해 도민·기업 중심의 규제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전문고과장을 초빙, '규제개혁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는 중단 없는 규제개혁과제로 4차 산업혁명 촉진,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인적 인프라 혁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경제단체의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적극

행정 실천과 선제적인 규제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공공행정,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생활 속 규제사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실무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앞서, 전라북도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하여 주요 건의과제의 관계부처 수용을 위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어던 차에, 국무조정실의 지방규제개혁 지원과 전북도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가 반영돼 임택진 규제전문고 과장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정선업 법무행정과장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단으로 규제개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규제예로를 중앙에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협업해 나가는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가 교육을 통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동물위생시험소 소통행사 12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고정분원생 시, 규제역 차단방역, 축산물 위생 검사 업무추진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의 노고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캠프에 송하진 도지사, 최빈식 전북도청노조위원장, 도청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소통 행사를 가졌다.

# 우리 농산물 소비 '너도나도' 동참

## 전북도-15개 도 출연기관 등 마을상품 소비촉진 상생 협약

전북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및 15개 도 출연기관과 산라농정위원회, 전북마을통합협동조합 간 '마을상품 소비촉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민과 도민이 함께하는 산라농정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전북도와 출연기관은 도내 농식품 및 마을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농어촌 봉사활동, 농어촌 체험 관광 등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 마을기업 등 생산자는 안전한 상품을 공급하고 농어촌 봉사, 체험 교류활동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협약식에서는 마을상품 전시와 마을상품 구매 가이드북을 배부하여 도와출연기관 직원들이 마을상품을 편리하고 손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도민들이 농특산물과 마을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9월 한 달 동안 도내 곳곳에서 '산라농정 농식품락(樂)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농민과 도민이 모두 즐거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의 마을상품과 농식품을 구매하겠다”며, “도민들도 농민들의 정이 듬뿍 담긴 우수한 마을상품을 적극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 도시공원 실효 해법 찾는다

## 전문가·시군 담당자 한자리 일몰제 문제점 등 열띤 토론

전북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14개 시군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가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대응방안 논의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주요내용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내용과 타시도 추진사례, LH에서 추진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토지은행제도 설명, LH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방안, 우리도 익산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상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전북도 관계관은 정부

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내용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 후 70% 이상 기부채납하여 주민에게 돌려 줄 경우 남은 부지에 타용도 30%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도시공원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임을 설명했다. 전북도의 도시공원은 총 736개소, 49.79㎢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은 111개소 23.38㎢로 축구장 2,160개소의 면적이며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1조 3천 5백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 건설교통국장(김천환)은 “시군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시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우선 확보,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공원 실효는 국가적 현안사항이므로 국가차원의 지원,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군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미생물산업 컨트롤 타워 가동 본격화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26일 개소 후 업무 돌입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이하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재단법인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법인)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건립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정읍시, 전북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공동으로 2014년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유치, 법인을 설립하고 건립공사를 추진해왔다.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앞으로 국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물론 미생물 산업 관련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규모는 1만4,854㎡의 부지에 연건평 6,525㎡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이다. 입주기업보육실과 연구실험실, 공동연구실이 들어섰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와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등으로 미생물산업의 시장규모(국내 추정 '2012년 4720억원·'2016년

5249억원 / 국의 추정 '2012년 8조 원·'2016년 12조원)는 매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농축산업 중 미생물 기반의 제품 개발과 산업과 기반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생물산업센터는 제품 개발과 현장 적용, 실용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인증지원 사업'은 핵심사업이다. 민간업체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 농축산용 미생물 분야 산업과 촉진에도 나선

다. 미생물 제품 연구와 전문연구·실용화 시설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화 장비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이다. 더불어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특히 시험생산동에는 10톤 규모의 대형 발효조와 1.5톤 발효조, 동결건조기 300kg급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 농축산용 미생물 대량생산과 배양조건을 확립하여 영세 규모 업체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6일 현지에서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생기 시장, 이남호 전북대학교총장을 비롯한 내외귀빈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정을=김대환 기자

# 현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

청와대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후임 인선과 관련해 “현재 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현재 구조(8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의 체제의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재판관은 내년 9월까지 1년 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 이후 7개월 넘게 이어져 온 현재소장 공석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